

인공지능잘활용하기

임재영

MLOps Engineer, NHN AD



Jaeyoung Lim

경력 및 학력

- NHN AD | 2024.08 ~ 현재 AI/ML 기반 Ad-Tech 플랫폼 개발
-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 2019.03 ~ 2025.02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졸업 (컴퓨터과학 부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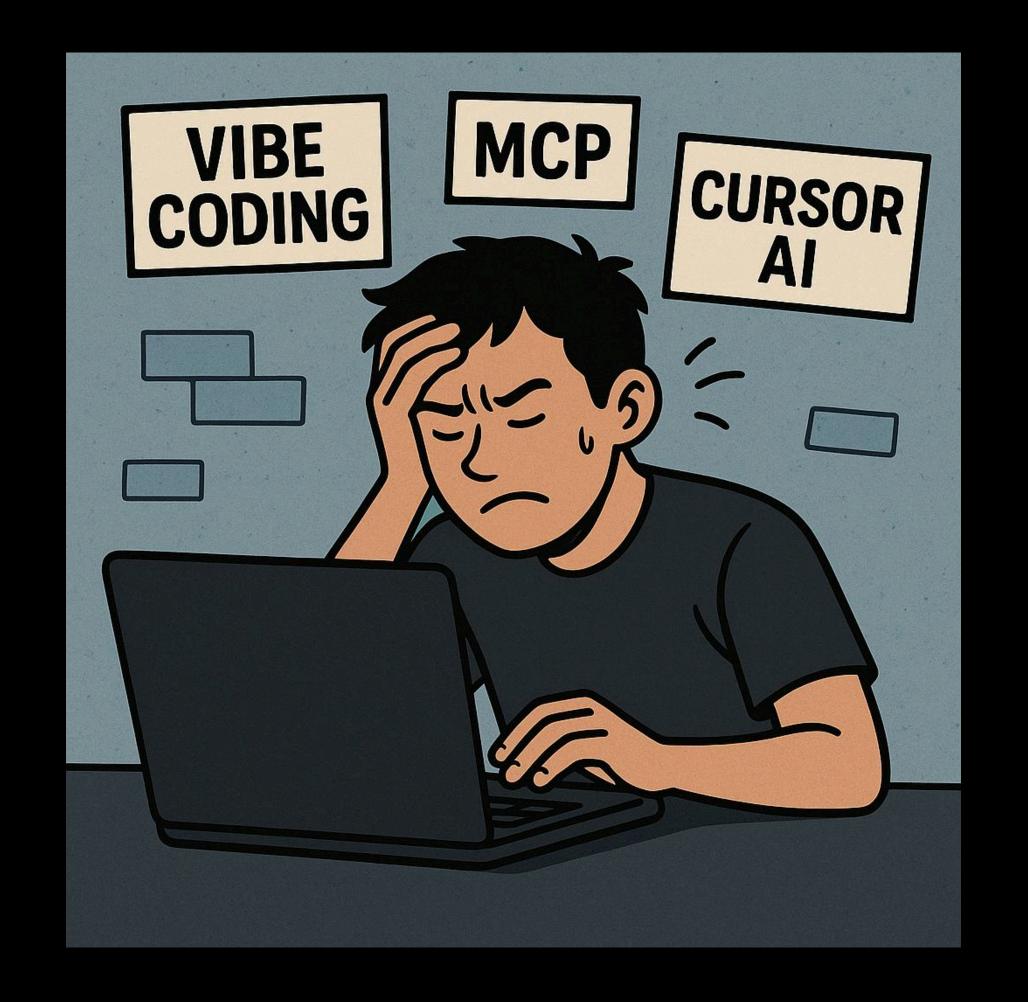
교내 이력

- SMUMC | 2023.03 ~ 2024.02 5기 Server 파트장
- 이니로 | 2019.03 ~ 2020.12 임원진 부회장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 모든 기술을 섭렵하며 반드시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 사장님 아님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방법





너, 내 동료가 되어라



헛소리 하지마 임마



AI 시대, 코더는 망했다? 개발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역량

단순한 코더에서 문제 해결사로

- 인공지능이 단순 코딩 작업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음
- 단순한 클론 코딩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한 프로젝트 경험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님

인공지능과 함께 빠르고 효율적인 협업

- 협업을 위한 팀원이라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보완하자
- 인공지능을 디자인, 성능 최적화, 코드 리뷰 등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이자

능력 확장을 통해 얻는 새로운 시각

- 분야를 한정하지 말자 → "나는 백엔드 개발자야! Typescript 잘 몰라!"
-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사이트를 얻으며 시각을 넓히자





공격수라면, 골을 넣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 팀 진영으로 백패스가 날라온다면?

환각에 빠지지 않는 방법



Al 환각(Hallucination)

-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나 코드를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현상
- 존재하지 않는 함수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패키지와 함수

```
from financial_analytics import calculate_roi

roi = calculate_roi(investment=1000, revenue=1500)
print("ROI:", roi)
```

- financial_analytics 패키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
- 개발자의 문제 해결이 지연될 수 있음

비효율적인 코드

- 얼핏보면 버블 정렬 같아 보인다
- 옳다구나! 하고 저 코드를 Production 환경에 넣어버린다면?



스트롭스트룹은 특히 AI 기반 코드 생성 도구들이 생각 없이 코딩하는 습관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이미 존재하는 코드를 학습하고 재조합하는 데 특화돼 있다며

그 결과 과거의 잘못된 패턴, 낡은 스타일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략)

이에 그는 AI가 제공하는 '정답처럼 보이는 코드'에 의존하는 개발자들이 늘어날수록

프로그래밍의 본질인 문제 인식과 추상화 설계 능력은 퇴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그는 좋은 개발자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맞는 모델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코딩은 그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문제 인식 자체를 AI에 위임하는 순간 개발자는 더 이상 기술자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C++ 창시자 "바꿔야 할 건 언어가 아니라 개발자의 사고 방식 中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포트폴리오 꾸준하게 정리하기



특히 고학년 학생들에게

-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볼까?" 하면 막상 정리할 내용이 너무 많고 방향도 안 잡힘
- 원하는 회사 공고가 떴을 때 급하게 시작하면 부족한 시간에 쫓겨 퀄리티도 보장할 수 없음

정리는 습관처럼!

- 경험을 쌓을 때마다 바로바로 기록하기 (소중한 나의 경험 날려버리면 너무 아까움)
- 자기소개서도 기업마다 큰 질문은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써보는 연습이 중요

도구 추천

- Notion : 커스터마이징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
- 랠릿: 간편하게 정리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

팀 프로젝트 & 해커톤 경험 많이 쌓기



프로젝트로 실전 경험 쌓기

- 협업 경험은 많을 수록 좋고, 현업과 크게 차이 없음
- 저학년일수록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고학년 때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깊이 디벨롭해보는 경험 추천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 vs 기존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것 → 각 과정에서 배우는 점이 다르기 때문
- 운이 좋다면 데모데이 때 만난 팀원들과 계속 함께할 수 있지만, 없다면 여러 커뮤니티 활용 가능

해커톤 유관력 기르기

- 사전 준비는 전략! (간단한 CRUD 코드, 기초 인프라 미리 준비)
 쿠버네티스 사전 학습해서 가장 먼저 서버 배포한 경험 → FE 파트와 협업 효율 극대화한 경험
- 팀을 이끄는 포지션을 맡아보자! (파트리더 역할 추천)
 리딩 경험은 큰 경쟁력이자 차별점 → 수동적인 태도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 얻는 것들 많아짐





전공 지식은 기본 체급

- 수업에서 듣는 내용은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
- 관심 있는 수업이 있다면 들어보기 (물론 수강신청 때 잡아야 말이지만.. ↔)
- "전공 수업 내용을 실제로 프로젝트나 해커톤에 적용했다" → 학부생 입장에서 매력적인 전략 분산시스템 듣고 MSA 구조에 관심이 있어 프로젝트에 적용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고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여 코드 구조를 최적화한 경험

미래를 위한 현재의 집중

- 따로 시간 내서 정리하기에는 귀찮기도 하고, 정리해도 잘 안 보게 됨
- 그때그때 열심히 듣고, 과제 있으면 열심히 하고, 트러블슈팅 있으면 정리만 해놓기 나중에 희미하게라도 남아 있는 기억을 면접 준비할 때 활용하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야를 넓히기

미래 채용 시장에서는 'AI 활용 능력' 도 중요하게 볼 것